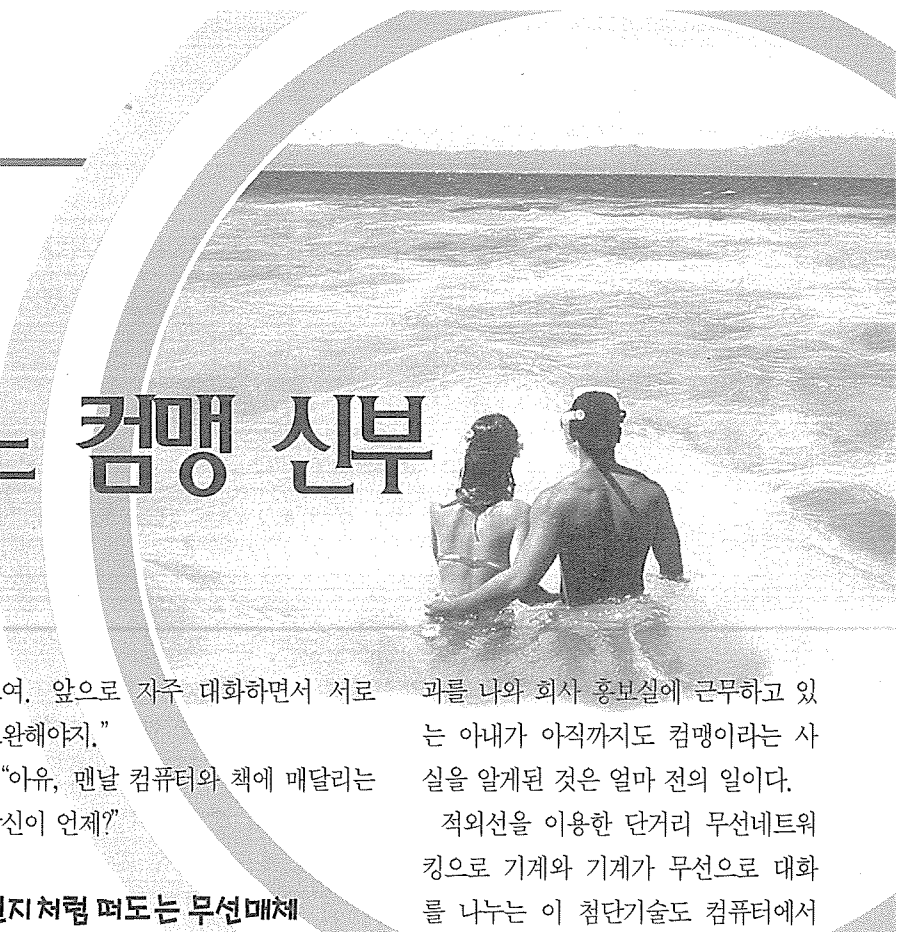


2008년, 어느 컴맹 신부



7월의 원산 바닷가

수직으로 쏟아지는 뽕별이 명사십리 흰 모래밭을 한껏 달구고 있고 푸른 바다와 형형색색의 비치 파라솔이 눈을 싱그럽게 한다.

“은영, 기분이 어때? 이 곳에 온걸 후회해?”

“아니. 막상 와보니 참 좋아. 자기가 이 곳을 고집했을 땐 뭉기도 했는데... 하와이는 내년에 가기로 해요.”

서울에서 어제 결혼식을 마치고 곧장 이 곳으로 신혼여행을 온 그들. 다국적기업의 잘 나가는 회사원 기훈은, 상사와 동료들이 권하는 해외의 이름난 명소들을, 또 사내 커플이 된 은영이 바라는 하와이를 마다하고 이 곳을 택했던 것.

2007년, 남북이 평화협약을 맺고 자유왕래가 허용된 지 1년째. 그러나 그동안 그는 북한 땅을 밟아보지 못했다. 해외근무 기간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자진 여길 와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았어? 어젯밤 호텔이며 음식이 아주 좋았어. 그리고 처음 오는 길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응, 다 아는 수가 있지. 당신은 음악, 영화, 연극 등 예술방면에 능한데 뉴미디어에 대해선 너무 관심이 없어

보여. 앞으로 자주 대화하면서 서로 보완해야지.”

“아유, 맨날 컴퓨터와 책에 매달리는 당신이 언제?”

먼지처럼 떠도는 무선매체

기훈은 투정하는 은영을 감싸안으며 일시켜 세워 호텔로 돌아오는 자동차 안에서 포터블 단말기를 챙겼다.

호텔방에 들어서자 벽면에 TV화면이 뜬다.

“어머, 이거 영화예요? 어찌된 거지요?”

“그래. 당신이 보고싶어 했던 거야. 우선 몸이나 씻자구.”

기훈은 은영의 옷을 벗기고 자기도 알 몸이 된 채로 목욕실 문을 들어서자 샤워꼭지에서 시원한 물이 쏟아진다. 은영은 남편의 가슴에 안겨 황홀해하면서도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해하며 “저 영화... 그리고 우리가 방에 들어서자마자 시작되다니?”

감탄하는 아내를 타일로 감싸주며 목욕실을 나온 기훈은 영화에 빠져드는 그녀에게 사랑스런 눈길을 보낸다.

그러면서 총명하면서도 애교 만점인 은영의 기계둔감증, 아니 기계기괴증을 생각하며 안타까워한다. 연극영화

과를 나와 회사 홍보실에 근무하고 있는 아내가 아직까지도 컴맹이라는 사실을 알게된 것은 얼마 전의 일이다.

적외선을 이용한 단거리 무선네트워크로 기계와 기계가 무선으로 대화를 나누는 이 첨단기술도 컴퓨터에서부터 시작된다. 2000년 초에 이미 개발되기 시작한 무선네트워크는 21세기 뉴미디어혁신을 선도하는 주역이 되었다. 지금까지 정보혁명을 주도한 반도체 기술은 여전히 혁신의 산파역을 담당하고 있다. 무선주파수(RF)를 이용해서 별도의 케이블 없이 모든 전자제품 간에 상호 정보교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무선네트워크 기술이다. 이 무선네트워크 장치를 극도로 축소시킨 것은 나노미터(10억분의 1미터) 단위의 크기로 줄어든 극소형 반도체 기술이다.

이미 세상은 지능먼지(intelligent dust)의 실현을 향해 달려왔다. 이 지능먼지는 지구상 어느 곳에서나 모든 형태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컴퓨터에 저장된 디지털 정보 뿐만 아니라 인간의 일상적인 대화, 인간과 자동차의 위치, 기후와 농작물, 수목의 성장 상태 등도 원거리에서 정확히 인지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의

말과 움직임이 먼지처럼 떠도는 무선 매체에 의해 날날이 알려지게 되어 이에 따른 부작용도 생겨났다. 개인의 사생활 침해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렸던 컴덱스에서 IBM, 인텔, 에릭슨, 노키아, 도시바 등 세계 굴지의 컴퓨터 및 무선통신업체들이 공동개발한 무선네트워크의 새로운 표준 '블루투스(Bluetooth)'를 적용한 제품들이 선보인 지 7년이 지난 지금 블루투스는 세계 수천개의 관련업체가 그 표준을 채택했으며 정보통신업계의 거대기업들이 망라되었고, 한국의 5개 IT업체들도 끼어있다. 이제 블루투스는 한국에서도 보편화되어 유행어로 뜨고 있다.

기획실에 근무하는 기훈은 회의에 대비해서 사무실 컴퓨터로 회의자료를 만든다. 이미 모든 자료는 무선네트워크를 통해 단말기에 저장되어 있고 회의가 시작되면 기훈은 이 포터블 단말기를 들고 회의장으로 향한다. 그가 회의장에 들어서면 즉시 회의장 천장에 부착된 네트워크 장치를 향해 자기의 단말기를 놓으면 그의 자료가 이 네트워크 장치를 통해 순식간에 다른 회의 참석자들의 단말기로 전송된다. 그와 동시에 회의실 대형 스크린에 그의 발표자료가 뜬다.

새로운 체계의 IP주소

3일간의 신희여행에서 돌아온 은영과 기훈은 양가의 부모들을 찾아 뵙고 그들만의 보급자리로 향한다. 은영은 그 동안 기훈에게서 컴퓨터와 그 밖의 정보통신기기 등에 대해 자상한 설명

을 들었지만 신기하다는 생각밖에 별 다른 감흥이 일지 않는다.

“우리 집에서 좀더 있다가 아주 저녁까지 해결하고 올 걸 잘못했나봐. 아직 식당에 가긴 이른데...”

“걱정 놓으라구. 오늘만은 내가 저녁 식사를 해결해 줄 것이니. 그 대신 내일부터 당신이...”

이윽고 그들의 집안에 들어서자 방안의 컴퓨터는 기훈의 단말기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아 인터넷을 통해 미리 골라놓은 식당에 음식을 주문하고 비디오 플레이어 또한 기훈의 단말기에서 스케줄을 넘겨받아 온라인으로 VOD(Video on Demand) 서비스에 영화를 주문하여 지정한 시간에 TV 화면에 영화가 뜨도록 한다.

이같은 일들은 기훈의 포터블 단말기와 집에 있는 컴퓨터, 비디오 플레이어, TV 등 모든 기기가 블루투스와 같은 표준에 따른 무선네트워크 회로를 내장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심지어 옥실문 손잡이와 샤워꼭지에도 무선네트워크 회로가 들어가 있다.

블루투스와 함께 결정적으로 필요하고 또 다른 표준은 새로운 세계의 IP(정보제공자)주소다. 포터블 단말기와 우리 주변의 모든 기기가 서로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각자 고유의 주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IP주소체계를 관장하는 '인터넷 엔지니어링 태스크 포스(IETF)'는 새로운 주소체계인 IPv6 표준을 제정해 놓았다.

2000년대 초의 IPv4가 32비트의 길이인데 비해 오늘날엔 128비트가 되었다. 이 표준에 따르면 1m²의 넓이에

약 1만6천개의 서로 다른 IP주소를 배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종래의 인터넷이 온 세계 곳곳에 널려있는 수백만개의 컴퓨터를 순식간에 찾아가는 것은 모든 웹사이트가 고유의 IP주소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전화선과 같은 케이블로 연결된 상태에서 정보를 교환하던 것이 지난날의 인터넷이었다면 현재는 컴퓨터와 웹사이트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기기들이 각자 고유의 IP주소를 갖고 있으며 케이블 없이 무선으로 상호 교신이 가능해진 것이니 놀랍지 아니한가!

이어폰처럼 머리에 얹는 셀룰러폰의 액세서리가 등장하면서 블루투스를 채용한 이 헤드셋은 셀룰러폰 전화기가 옆 방에 있거나 짐 속에 들어 있거나 상관없이 전화를 걸고 받을 수 있게 해 준다. 또한 블루투스 회로가 내장된 다른 전자기기들을 헤드셋에 달린 스위치를 이용해서 간단히 켜고 끌 수 있는 기능을 갖추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무선네트워킹 기술이 자동차와 같은 교통시스템과 만나서 새로운 혁신이 이뤄졌다. 운전석에 달린 모니터 버튼을 누르면 처음 가는 곳의 레스토랑, 은행, 주유소, 서점, 관광지 등의 상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시간에 맞춰 저녁식사가 배달되자, 영화를 즐기고 있던 은영은 옆 방에서 회사 동료와 통화하는 기훈을 향해 소리친다.

“브라보! 자기 정말 캡이야!” ④

池 棋 旭 <자유기고가>